

베버의 가치와 사실의 비대칭적 분리:

가치연관과 가치중립성을 중심으로

김 용 학*

장 덕 진**

지금까지 사회과학에서의 객관성을 둘러싼 논쟁은 대부분이 과학의 영역과 가치의 영역은 전적으로 같은 것이어서 서로 분리될 수 없다거나, 또는 그 둘은 절대적으로 분리되어야만 한다는 식의 흑백논리를 주장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베버의 입장을 밝혀보려 할 때 이러한 흑백논리로서는 올바른 이해에 도달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베버는 한편으로는 사회과학이 가치연관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다는 필연성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과학의 가치중립성을 주장하는, 언뜻 보기에는 이중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과학과 가치가 서로 완전히 분리될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같은 것도 아니라는 베버의 입장에 충실하면서 이 두 영역이 가지는 교집합의 경계선을 밝혀보려고 한다. 베버의 생각이 대단히 복잡하고도 치밀한 것임을 감안할 때, 우리는 그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로부터 출발하는 부정의 방법이 전략적인 잇점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즉 베버의 입장이 무엇이었나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베버의 입장이 아닌 것은 무엇이었나에서 출발하려는 것이다. 베버에 대한 잘못된 비판으로서 대표적인 것은 그가 '가치로부터 자유로운 사회학이라는 신화'를 창조했으며, 그 자신의 방법론적 원칙과는 달리 그 스스로도 역사 분석에 있어서 가치와 사실의 철저한 분리라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혹은 충족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레오 스트라우스(Leo Strauss)는

* 연세대 사회학과

** 연세대 사회학 석사

윤리적으로 중립적인 사회과학이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베버 자신도 사실상 실제의 역사 분석에서는 많은 가치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 중립이라는 베버의 방법론적 원리와 실제 저술 사이에는 근본적인 불일치가 있다고 비판한다(Strauss, 1953 : 35-80). 굴드너 또한 베버의 주장과는 달리 과학자들이 스스로의 규범적 지향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과학에 맡겨진 주요한 사명인 과학과 가치간의 상호보완을 이룰 수 있다고 하면서 그를 비판한다. 굴드너의 견해에 따르면 베버는 절대적으로 가치중립적인 과학이라는,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새장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Gouldner, 1964 : 196-217).

하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이들의 비판이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첫째로, 베버가 말하는 과학에서의 가치중립성이란 대단히 제한적인 의미만을 가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베버가 과학은 모든 측면에서 윤리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둘째로, 앞의 문제와 관련하여, 그들은 베버가 대칭적 가치중립(symmetric demands for value freedom)을 주장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하지만 브룬(Brunn, 1972 : 21)이 지적하듯이 베버의 가치중립은 비대칭적(asymmetric)인 것이다. 이때 대칭적 가치중립이란 과학과 가치가 항상 서로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비대칭적 가치중립이란 어떤 특정한 맥락에서는 과학은 가치로부터 분리되어야 하고 또 다른 어떤 맥락에서는 가치는 과학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로, 굴드너와 스트라우스는 강의실에서 가치판단을 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와 과학에서의 가치판단의 문제가 서로 전혀 다른 성질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같은 문제로 혼동하여 베버를 비판하고 있다. 앞의 것은 베버 시대 독일 대학의 권위적 사제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에만 해당되는 개인적 요구인 반면에 뒤의 것은 상황을 불문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할 요구라는 차이점이 있다. 끝으로, 베버가 자신의 방법론적 원칙과는 달리 실제로는 종종 가치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스트라우스의 해석 또한 그다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스트라우스가 ‘선악을 가리는 가치판단(appraising value judgement)’과 ‘특징지우는 가치판단

(characterizing value judgement)'을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뒤에서 밝혀지겠지만, 베버의 가치중립적 과학은 선악을 가리는 가치판단을 삼가고 있는 반면에 특정한 조건하에서는 특징지우는 가치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과학과 가치의 문제에 대한 베버의 입장은 언뜻 보기에 이중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즉 그는 사회과학의 가치중립성을 주장하는 것에 못지 않게 강한 어조로 과학은 가치로부터 분리될 수 없고 분리되어서도 안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베버의 입장을 오늘날의 사회과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써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그는 연구의 대상 자체가 가치에 의해 결정되며, 일단 연구 대상이 정해지더라도 분석의 수준에서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검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무엇을 중요한 변수로 검토할 것인가 또한 가치에 의존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게 되는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연구의 대상과 변수의 선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모순적인 듯이 보이는 베버의 입장을 적절히 이해하기 위한 첫번째 작업으로서 우리는 현대의 과학철학에서 발전된 개념들인 '발견의 맥락(context of discovery)'과 '타당화의 맥락(context of validation)'이라는 구분을 도입하여보았다. 원래 이 개념들은 과학철학의 논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론을 발전시켜야만 한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적 대응으로 나온 것이다(Rudner, 1966 : 4-9). 간단히 설명해보면 발견의 맥락이란 연구자가 개념이나 개념틀, 또는 가설을 형성해가는 맥락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맥락에서는 아직까지 무엇을 논리적으로 따질 수도 없고, 가장 훌륭한 가설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그러한 단계이다(Rudner, 1966 : 6). 타당화의 맥락 혹은 정당화의 맥락(context of justification)이란 연구자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가설을 받아들일 것인가 기각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엄격한 논리적 과정을 동원하는 맥락을 말한다. 이러한 두 맥락의 구분이 의미하는 것은 발견의 맥락에서 어떠한 예가 찾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타당화의 맥락에 대한 어떠한 추론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러드너에 의하면 예를 들어

하아비(Harvey)가 어떻게 해서 혈액순환에 관한 가설을 만들게 되었는가라는 과학사적인 문제[발견의 맥락]와 하아비의 가설이 수집된 증거에 의해서 충분히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는 것[타당화의 맥락]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두 맥락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사회과학을 하나의 ‘과학’이라고 부르는 한 그것이 방법론적으로 자연과학과는 다르다는 주장은 자기모순적이라는 점에도 동의하게 된다. 왜냐하면 두 과학이 방법론적으로 서로 다르다는 주장은 모든 과학은 가설의 검증에 있어서 동일한 정당화의 논리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 인용한 베버의 생각은 이러한 두 맥락의 구분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연구의 대상을 선택하고 끝없는 인과의 망 속에서 어느 정도까지 깊이 천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연구자 및 그의 시대를 지배하는 평가적 관념들(evaluative ideas)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연구의 방법에 있어서는 연구를 이끌어가는 “관점”이 그 연구에서 사용될 개념적 틀의 구성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발견의 맥락].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연구자는 다른 모든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사고의 규칙들에 의해 명백하게 제약받는다. 왜냐하면 과학적 진실이란 진리를 탐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타당한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타당화의 맥락]. ([]안의 내용은 필자가 삽입한 것이고 강조는 베버의 것임)(Weber, 1949 : 84).

이상에서 볼 때에, 사회과학에서의 객관성에 대한 베버의 생각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연구의 문제를 제기하고, 무한한 인과망으로부터 설명을 위한 변수의 범위를 설정하고, 가설을 만들어내는 과정인 발견의 맥락에서는 과학에 대한 가치의 개입이 불가피하며 나아가 이러한 개입이 바람직하기조차 하지만, 타당화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검증의 논리 그 자체는 결코 가치의 영역에 의해 침해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은 “논리는 무한히 단단한 재료로 만들어진 기계(mechanism)이다. 논리는 결코 휘어지지 않는다”(Wittgenstein, 1966 : 15-16)는 비트겐슈타인의 주장과 흡사한 것이다. 나아가 베버는 연구자

가 자신의 가치에 의해 제약받으면서 만들어낸 가설을 타당화의 맥락에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그것이 갖는 해석적인 의미와 객관적 가능성의 범주 둘 다를 사용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해 놓고 있기도 하다. (Weber, 1949 : 79-80)

가치중립성에 대한 베버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두번째 작업으로서, 우리는 베버가 실제의 역사분석에서 보여주고 있는 가치판단적인 명제들이 그의 방법론적 입장과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를 검토하여 보았다.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간에 베버가 가치판단을 내리고 있는 구절들을 모아놓고 있는 스트라우스의 목록(Strauss, 1953 : 51-52)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고등종교-하위종교’, ‘합리적-비합리적’,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효율적인 기제(mechanism)로서의 관료제’ 등과 같이 가치판단을 함축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예들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이러한 예들은 우리로 하여금 베버가 스스로 모순에 빠져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끔 한다. 스트라우스는 바로 이러한 예들에 근거하여서, 가치판단이 없이는 현상에 대한 인식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뒤집어서 말하면 현상에 대한 인식에는 반드시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가치중립적인 사회과학이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만약 가치판단을 부정한다면 사회과학 자체가 존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스트라우스의 비판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주장을 담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고 베버 자신의 방법론적 원리와도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인 반면 다른 하나는 이견의 여지가 있고 베버는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취했던 주장이다. 그 두 가지 주장이란 첫째, 가치가 개입되지 않고는 인식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며, 둘째, 그렇기 때문에 사회과학은 가치중립적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중 뒤의 주장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으며 특히 앞의 주장에서 곧바로 뒤의 주장을 이끌어내는 것은 그러기 위해 거쳐야 할 많은 과정을 뛰어넘고 있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고 본다.

네이글과 험펠은 바로 이러한 과정에 대한 논의를 함으로써 가치가 개입된 인식에서 출발하여 가치중립적인 평가를 내리게 될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네이글은 ‘가치판단’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스트라우스와 같은 주장은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이 두 가지의 뜻을 섞어서 쓰고 있다고 비판한다(Nagel, 1961 : 492). 그의 구분에 의하면 “어떤 이상에 대해 동의를 하기 때문에 특정한 도덕적(또는 사회적) 이상이나 특정한 행위(또는 제도)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를 표명하는 것”은 ‘선악을 가리는 가치판단(appraising value judgement)’에 해당하며, “어떤 보편적으로 인식되어 있는(그리고 어느 정도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행위유형이나 대상이나 제도와 같은 것들이 주어진 특정한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체현되어(embodied) 나타나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특징지우는 가치판단(characterizing value judgement)’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구분에 동의할 수 있다면 많은 경우 ‘가치판단적으로 보이는 베버의 언급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예를 들어 종교를 구분하는 기준은 매우 가치연관적이지만, 일단 이 기준이 설정된 후 한 사회의 종교를 고등종교, 혹은 하위종교로 판단하는 것은 가치중립적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험펠도 네이글과 흡사한 가치판단의 종류를 나누고 있다. 그는 가치판단에는 ‘도구적(또는 상대적) 가치판단(instrumental value judgement)’과 ‘범주적(또는 절대적) 가치판단(categorical value judgement)’이 있는데, 도구적 가치판단은 “만약(if) … 이면(then) … 이다”라는 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범주적 가치판단과는 구분된다고 주장한다(Hempel, 1965 : 84 – 88). 즉 “특정한 목적 G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M이라는 수단이 좋다”와 같은 명제들을 사용함으로써 과학은 가치에 대한 도덕적 가치판단을 사실적 판단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험펠의 이러한 논의를 베버의 방법론에 적용시킴으로써 예를 들어 대단히 가치를 담고 있는 듯이 보이는 ‘진보’라는 용어가 어떻게 해서 절대적으로 비평가적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다. 베버는 “만약 ‘진보’라고 하는 단어를 기술적 분화라고 정의한다고 하면, 과학은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그러한 진보가 존재했는지 아닌지를 말해줄 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내적 풍부함(inner richness)’이 증가한다는 의미에서의 ‘진보’를 말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싶어한다면, 경험적 과학은 거기에 대해 답해줄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치판단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Weber, 1949 : 27-28)”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베버가 목적 G 그 자체는 결코 과학의 이름으로 주어질 수 없으며 가치에 의해 주어져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달리 말해서 그는 목적이 흔들림 없이 주어져 있다면 과학은 어떠한 수단이 “기술적으로 가장 정확한 것인지”를 평가할 수 있을 따름이며, 이렇게 할 때에만 평가는 가치중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Weber, 1949 : 37-38). 베버의 이와 같은 진술들 속에 담겨 있는 핵심적인 논리 구조는 험펠의 도구적 가치판단의 형태, 즉 “만약 ... 이면 ... 이다(if then)”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베버가 종종 선행절이 윤리적으로 확실하게 주어진 것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만은 인정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베버의 가치판단과 관련한 문제는 그가 가치판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그가 선행절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는 데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베버의 객관성 주장을 올바르게 이해해 보려고 시도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사회과학에서의 가치중립을 전적으로 옹호하려는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같은 주장은 동시에 가치중립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베버의 모습이 올바른 것이라면, 그의 입장은 과학은 오직 상대적인 객관성만을 주장할 수 있을 따름이며, 동시에 그 영역 안에서는 상대적인 객관성을 주장해야만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만하임의 ‘관계주의(relationalism)’는 절대적 객관성이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연구자가 자신의 입장을 솔직하게 밝히면서 그 입장에 섰을 때에 지켜야 할 타당화의 원리들을 준수함으로써 적어도 ‘관계적인 객관성(relational objectivity)’만은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우리가 살펴본 베버의 입장과 대단히 흡사한 것을 볼 수 있다.

베버는 과학을 지도에 비유한 적이 있다. 과학은 특정한 목적지에 가기 위한 길을 가르쳐주지만, 어디로 가야할지는 가르쳐주지 않는다.